

## 제지연합회,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제지공업연합회(회장 조동길)는 지난 1월 9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07년 제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국민의례, 회장 인사말, 신입회원 소개, 회원사 회장단 덕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인사회에서 조동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6년은 우리 제지업계가 인수합병을 비롯한 구조조정 등으로 나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한 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에 따른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환율하락,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경쟁국가에서의 제지산업 성장에 따른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면서 "2007년에는 구조조정을 지속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제지업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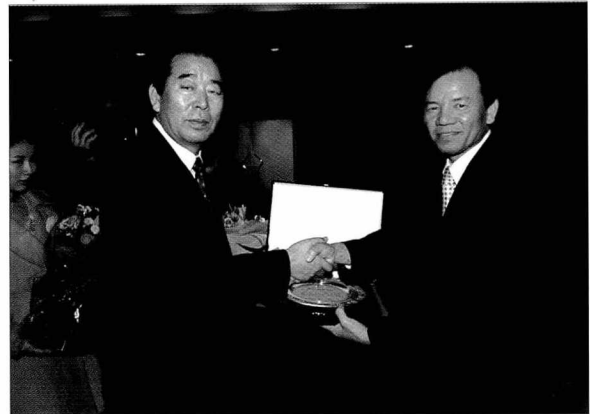
## 한솔제지, '턴어라운드 2007' 신년 경영방침 확정

한솔제지는 2007년 경영방침을 '턴어라운드 2007'로 정하고,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어떠한 경영환경에서도 성장하고 번영하는 기업 체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솔제지는 "2002년 이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으며, 시장에서 생존과 번영의 열쇠를 찾기 위해 모든 사고와 업무방식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왔다"면서 "그러나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경영환경의 파고를 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한 차원 높은 특단의 각오와 전략을 통한 턴어라운드를 추진하여 2007년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솔제지는 이를 위해 2006년 말부터 전 부문에서 상호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해 경영방침 실천방안과 비전달성을 위한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 무림페이퍼 김석만 부사장, 제1회 진주시최고경영자상 수상



무림페이퍼 김석만 부사장(사진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9일 진주시청에서 정영석 진주시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진주시가 수여하는 진주시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진주시최고경영자상은 진주시가 지역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기업인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 2월 제정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한 김석만 부사장은 무림페이퍼를 전 세계 60여 개국에 고급 아티지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진주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기업인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무림SP, '2006년도 노사문화 대상' 수상



무림SP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양재동 에티센터에서 개최된 '2006년도 대한민국 노사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상호신뢰적인 노사관계로 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치러진 시상식에는 박인규 무림SP 부사장과 김재진 무림SP 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석, 이상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상장과 상패를 받았다.

무림SP는 노사협의회 운영과 경영설명회 실시, 정기적인 CEO와의 만남을 통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열린 경영을 실천했고, 이렇게 다듬어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2002년 이후의 5회 연속 무교섭 타결과 1990년 이후의 무분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아 우리은행,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 한국제지, 간절곶 해맞이축제 협찬

한국제지가 연말연시를 맞아 울산광역시, 울산MBC가 주최한 '2007년 간절곶 해맞이 축제'를 협찬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해돋이 명소인 간절곶에서 열린 해맞이 축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2007년 1월 1일 오전 8시까지 제애행사를 포함한 각종 문화공연,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제지는 이번의 협찬이 울산 및 경남 지역의 인지도 확대에 큰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 한국제지, 신년 하례식 개최



한국제지는 지난 1월 10일 역삼동 소재 중식당에서 고객 대상 2007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전원중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의 새해인사로 시작된 '07년 신년 하례식'은 인쇄용지 대리점을 비롯해 실수요 고객, 복사용지 대리점, 유통업체 등 총 46개 업체 대표가 참석, 2007년 사업을 전망하고 서로의 사업번창을 독려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 전원중 대표이사는 "온산공장이 초지 4호기 준공으로 연 52만톤 생산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국내 단일 사업장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시에 백상지와 복사지 품질에서 진일보하였다"면서 "무엇보다 판매기준으로 풀가동에 육박했던 것에 대해 고객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은 복사용지 월 1만톤 생산 및 판매목표 달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제지, 2007년 시무식 개최

한국제지는 지난 1월2일 온산공장 노조위원장 등 전임자와 간부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전원중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원가절감"임을 강조하며, "힘난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도전적인 자세로 한지인의 저력을 발휘해 수익기반 재구축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엔페이퍼, TS센터 발족 현판식 가져



이엔페이퍼는 지난해 12월 18일 신탄진공장 내에 T/S(Technical Service)센터를 설립, 현판식을 가졌다. 이와 관련 이엔페이퍼는 "T/S센터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각 공장의 공무부 인력을 통합한 것으로 공무, 설계, 보전, 계전 등의 기술 양성 및 교류를 통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T/S센터 통합사무실은 중부권인 신탄진공장에 위치해 각 공장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 2단계 정비에도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우식 대표는 발족식에서 "T/S센터가 체계적인 교육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기술 전문가들을 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T/S센터는 '제지산업 설비보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적극적인 업무지원으로 설비를 안정시키고 가동률을 향상시켜 생산성 증대에 활용될 예정이다.

## 이엔페이퍼, MFC지 E-프라임 출시

이엔페이퍼는 지난 2006년 12월 교육용 학습지에 주로 쓰이는 MFC지 E-프라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프라임은 기존 백상지에 아트지 수준의 안료를 코팅하여 표면 평활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인쇄 시 선명한 색상 발현도가 뛰어난 E-프라임은 삽화와 사진의 인쇄가 우수해 교재 학습 시 이해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프라임은 백색과 미색으로 생산되며 평량은 70, 75, 80, 100, 120g/m<sup>2</sup> 등이다.